

KREI리porter 7월 경북지회 간담회 결과

1. 회의 개요

- 목 적: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설명, 농약 가격 관련 설문조사를 위한 사전 의견 수집, 박재석 회원 농가 ‘에버그린 만가닥 버섯농장’ 견학
- 일 시: 2019년 7월 30일(화) 11:30~15:00
- 장 소: 경북 청도군
- 참 석: 총 21명
 - 경북지회 리porter(17명): 곽동준, 김갑순, 김동섭, 김상원, 김인남, 김정숙, 김향빈, 임영섭, 정태근, 최태봉, 김영국, 김현원, 서미자, 양재웅, 윤석구, 조현구, 최진석
 - 연구원 관계자(4명): 김용렬 연구위원, 서대석 연구위원, 추성민 연구원, 김미리 주무원
- 주요 일정

시 간	분	일 정	비 고
11:30~12:30	60	점심식사	청도로컬푸드허브센터
12:30~14:30	120	간담회	박재석 회원 농가
14:30~15:00	30	견학	‘에버그린 만가닥 버섯농장’

2. 주요 내용

1)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설명

- 연구원에서는 농식품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자료 및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을 정리하고 있음.
- 지난 주에는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및 농촌 태양광 상담 콜센터 운영,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에 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음.

2) 농약 가격 관련 예비조사 및 관련 의견 수집

-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농협 계통농약 가격인하에 대한 농업인 만족도조사 분석’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농업인들이 실제 농약을 구매하는 형태와 농약 정보 및 구매가격 만족도, 계통농약 및 농협의 역할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음.
-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농약 계통농약 가격인하에 대한 농업인 만족도 조사’ 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협의 농약 계약가격 인하 효과에 대한 정략적이며 정석적 분석결과 제시와 향후 농협 자재부 농약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농약 계약가격을 동결 또는 인하하였고, 특히 금년에는 전년 대비 최대 하락 폭인 5%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의견에 따르면 여전히 농촌에서는 농약 가격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음.
- 기존 농약 성분과 다를 바 없는 제품을 용기나 라벨 등을 리뉴얼해 더 높은 가격에 팔거나 단일제품을 사서 혼합하면 저렴한데, 혼합제를 만들어 전혀 다른 제품처럼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체감할 때 농약가격이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 PLS제도 시행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이 허가된 농약만을 사용해야 하며 지역별로 품목에 따른 농약 가격에 편차가 있어(상주는 지역특산물인 참외 농약 가격이 저렴함) 농업인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따져 비교 구매하기 어려워졌다고 함.
- 정부에서 농협에서 판매한 농약가격이 농약상의 동일제품 판매가격보다 비쌀 경우 가격차만큼 환불해주는 ‘가격차손보전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가격차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면 판매상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 꺼려지며, 실제 요구한 사람만 환불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별다른 보상이 없어 알고 있는 사람만 아는 일시적인 조치일 뿐 안정적인 시장유지를 위한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함.

3) 기타 현장 여론 수집

- 김영국: 기초적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농업에 진입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임. 선진국 농업 인프라를 모델 삼아 농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함. 기업형 대농 위주로 참여하는 스마트팜으로 소농의 희생은 계속되고 있어, 전문가를 소농에 투입,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영농 개선과 비용 절감 등으로 대농과 소농의 동반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임.
- 조현구: 도시민을 농촌에 유입하거나, 도시텃밭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보다는 기존 농촌을 살리는 데 주력해주기 바람.
- 박재석: 최저임금제 시행 전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에도 동일 적용한 최저임금은 해당 나라에 따르면 더 큰 가치를 갖고 있을 것임. 차등 적용이 필요함.
- 김동섭: 과수의 경우 계절에 따른 한시적 인력고용으로 최저임금 적용 어려워, 특히 인력소개소에서 중간 수수료를 많이 떼어 실제 일하는 근로자는 임금 50~60%밖에 받지 못하는 실정임. 근처 농가에 고용한 일손을 시기별로 나누어 투입, 수수료 없이 안정적인 인력 활용이 가능한 공유시스템이 필요함.

4) 박재석 회원 농가 '에버그린 만가닥 버섯농장' 견학

- 26세에 새송이버섯으로 농사를 시작한 박재석 회원은 2010년도에 만가닥 버섯으로 품종변경을 하고, 자체적으로 직접 종균을 개발, 저장성을 높여 캐나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해외수출을 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느타리, 새송이, 팽이버섯이 3대 버섯으로 알려져 있으며, 만가닥 버섯은 일반 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함. 만가닥버섯은 일본에서는 3대 버섯으로 매우 유명하며, 생김새는 느타리버섯과 비슷하고, 아스파라긴산 함량이 매우 높고, 조직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큰 특징이 있다고 함.
- 국립종자원으로부터 만가닥 버섯 품종보호권을 획득하였고, 경북농업마이

스터대학, 경북대 응용생명과학부 현장교수로 활동하기도 했음.

- 청년농업인으로 농업을 시작해 현재는 농림식품부에서 선정하는 전문농업 경영인(농업마이스터)로서 버섯 재배기술을 전수하고 있음.
- 다른 농산물에 비해 한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인력 고용이 가능하고, 비교적 근로여건이 좋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여느 농가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인건비 상승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함. 인건비와 자재값, 생산비 증가에 비해 버섯 가격은 오르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함.
-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기금이 도농을 동일 적용하고 있으나, 농촌이나 산촌, 일손 수급이 특히 취약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정해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 가능한 정책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함.

3. 이모저모

